

지역 소식통

부안해경, 양귀비 재배 주민 검거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월부터 단속 전담반편성과 형 사기동형 운영으로 도서지역 및 취약 해안가를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부안군 변산반에서 양귀비 150주를 몰래 재배한 K씨(76)를 검거했다. 해경은 이날 양귀비 150주를 전량 압수하고 국과수에 성분을 의뢰한 후 K씨를 소환하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어 환각과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 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 7건을 단속했으며 대량 재배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수질오염사고 통합 방제 훈련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2017년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훈련이 지난 11일 사산저수지에서 전북 3권 역 통합방제 단(부안,정읍,고창) 유관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가상훈련은 저수지 옆 도로를 운행 중이던 탱크로리 차가 급브레이크에 밀려 저수지로 전복되어 유류가 유출되는 상황으로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법과 수습능력을 향상하려고 실시했다. 조남출 지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수질오염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전달

박우정 고창군수가 15일 '제45회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년이 되는 관내 청소년 613명에게 카드를 보내 축하하고 격려했다.

박 군수는 "드넓은 이상과 꿈을 펼쳐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우리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동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담아 올해 성년이 되는 만 19세 청소년의 가정에 발송했다. '성년의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1973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1984년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변경됐고,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연령이 낮춰졌다.

고창군은 해마다 성년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축하카드를 보내 격려했다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현대에너지

정읍 첨단과학산단 확장 이전

축하 화환 대신 받은 백미 6,550kg 복지시설 기부키로

전북을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주)현대에너지(대표 장희근)가 전북 정읍시 첨단과학산단지(정읍시 신정길 33) 신사옥 부지에서 지난 12일 오전 11시 임직원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장 이전개업식을 가졌다.

정읍 첨단과학산단지 입주 1호 기업인 (주)현대에너지는 2012년 설립된 회사로, 정읍시 농소동(롯데마트 앞)의 사무실과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에 소재했던 공장동을 2015년 정읍시와 첨단과학산단지 내 입주 협약을 맺고, 그해 착공식을 하여, 약 1,500평 대지에 건물 2동(공장동 250평 사무동 125평)으로 2016년 준공을 하고 입주하였으며 임직원은 외주인원 포함 약 100여명으로 정읍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태양광발전시설 컨설팅부터 시공, A/S, 정부인찰과 전기공사, 철재구조물 제작, 접속관, 수배전반 제작 등을 하고 있다. 또 (주)현대에너지는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육성사업에 공을 세운 기업에게 도시사가 수여하는 상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된 제 13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서 도시사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매년 태양광 발전소 10MW 설치를 목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장 대표는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매년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날

역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축하 꽃 화환 대신 백미 6,550kg(1,300여만 원 상당)을 대신 받아, 지역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복지시설인 정읍시 애육원 및 하늘행노인복지센터, 화평의집(장애인복지시설)에 보내는 등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선행을 베풀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AI 거점소독통제초소 3개소 철수

5월 말까지 군청 축산과서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 지속 운영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극성을 부리던 AI(조류인플루엔자)가 올 4월로 접어들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고창군은 지난 4월 4일 충남 논산에서 최종 발생이후 추가발생이 없고 전국적으로 AI 종식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관내 설치된 AI 거점소독통제초소 3개소(아산 봉덕 대신 축산 흥덕 석교)를 지난 12일 철수했다.

철수 이후로도 군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5월 말까지는 군청 축산과에서 가축질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독을 지원하고 축협이 운영하는 거점소독장 1개소는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소(9개소)는 화·수요일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 소독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그동안 총 8건의 AI가 발생해 21개 농가에서 약 59만 수를 살

처분했으며, 지난 3월 8일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로 88일째 시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우정 군수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AI 발생으로 그동안 주말과 휴일도 없이 AI 차단방역에 협조해 준 많은 공무원들을 비롯해 관련 유관기관에 그리고 차단방역에 함께 애써준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축산 농가는 농장 자체 소독·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고 고창군도 청정 고창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보건소, 의약품 판매·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의약품 판매업소 74개소와 마약류 취급업소 143개소이다. 보건소는 의약품 판매업소는 ▲전문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마약류 취급업소는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마약류 적정 관리 여부 ▲의료용 마약류의 불

법 유통·사용 여부 ▲마약류 보관과 봉합 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의 조치하고 위반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21일 오디데이 기념일 지정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지역특화작목인 오디를 대상으로 오는 21일을 오디데이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5월21일은 '부안 오디(5) 먹고 돌(2)이 하나(1)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부안 오디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부안 오디의 소비 촉진 및 홍보를 하려고 지정하였다.

국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기념일은 오이데이(5.2) 배 데이(10.22) 등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재 소비추수를 누리고 있는 기념일은 발렌타인데이(2.14), 삼겹살데이(3.3), 화이트데이(3.14), 블랙데이(4.14) 로즈데이(5.14) 등 27개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강성선 차 환경기술과장에 따르면 오디는 부안의 대표 작목으로 전국재배 면적의 23%를 차지 전국 최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800여 톤의 오디가 생산되어 최고의 맛과 품질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오디에는 필수 아미노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칼슘, 칼륨, 비타민 C, 철분이 풍부하며 항산화 색소가 많아 노화 억제 귀와 눈을 맑게 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함유하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오디 데이 기념일 지정을 주제로 오디 생과 수확 오디를 이용한 가공품 시연, 청정 부안 누에사육 장면 등을 5월 16일(화) 18:00에 KBS1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 방영하게 되며 생생 3도 시사뉴스, 흡소광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부안 오디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농어촌공 정읍지사, 경영위기농가 45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2017년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4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지난해 부채부담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영농휴직자가 있는 경우 가능),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의 소득이 50%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

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 가격을 결정하고(60,000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가능하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

사업지원 신청은 정읍지사 농지은행부(530-0813)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ta.or.kr)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details about gift sets and prices.